"한번 보면 빠져나갈 수 없다" TV-폰 '화면의 유혹'

시간이 돈이다

④ 디스플레이 경쟁

스마트폰 콘텐츠 업계 서비스 확대
속도는 빠르게·배터리는 오래가게
콘텐츠 즐길 최적의 환경 만들어야

삼성전자는 콘텐츠를 피로 없이 소비하기 위해서는 더 크고 높은 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QLED 8K TV와 한종희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삼성전자

콘텐츠 업계의 '시간 뺏기' 전략은 산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필요한 도구도 덩달아 발전하기 때문이다.

모바일과 가전 등 업계는 더 빠르고 오래가면서 가벼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더 크고 선명한 디스플레이 역시 더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로 평가된다.

◆모바일, 더 빠르고 오래

5일 IT업계에 따르면 콘텐츠 업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을 겨냥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장소가 TV와 PC가 있는 거실을 벗어나, 모든 공간으로 확대한 영향이다.

통신 속도는 콘텐츠 소비 방법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했다. 고화질 영상도 끊기지 않게 스트리밍할 수 있는 LTE망이 보급되고 요금제도 저렴해지면서,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모바일 기기도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훨씬 빠르게 진화했다. LTE를 처음 지원한 갤럭시 S3에 탑재된 프로세서는 쿼드코어 1.4㎓, 최근 출시된 갤럭시 S10은 옥타코어 3㎓에 달하는 성능으로 7년여 만에 수치상으로만 2배 이상 빨라졌다. 램은 1GB에서 8GB로 8배나 늘었다.

얼마나 오래 가는지도 중요해지면서 배터리 크기도 커졌다. 갤럭시 S3 배터리는 2100㎃h, 갤럭시 S10은 3400㎃다. 단, 소모전력이 많아 실제 사용시간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외장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 중, 배터리 생산업체 에너자이저는 동영상을 연속으로 48시간 재생할 수 있는 스마트폰까지 내놨다.

5G 상용화가 콘텐츠 시장을 더 확대할 전망, 모바일 업계도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여러 형태 기기들을 개발 중이다.

VR은 5G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기다. 이미 게임 업계에서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빠른 통신 속도를 기반으로 모바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피로 없는 화면 경쟁

디스플레이 업계도 콘텐츠 업계 발전에 발맞춰 분주한 모습이다.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부담없이 소비하기 위해서는 피로감 없이 볼 수 있는 화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바일 디스플레이 대형화도 같은 이유다. 갤럭시 S3는 4.8인치, 갤럭시 S10은 6.1인치로 27%나 커졌다. 갤럭시 S10+ 모델은 6.3인치나 된다. 갤럭시 노트9이 6.4인치, 갤럭시 노트10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폴더블폰도 같은 이유로 개발됐다. 휴대가 간편하면서도 태블릿 크기 화면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다. 갤럭시 폴드가 7.2인치, 화웨이 메이트X가 8인치다. 콘텐츠 소비가 다변화될 가능성에 기대가 실린다.

화면을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시도가 이뤄진다. 베젤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바일 전면 카메라를 얼마나 잘 숨길 수 있는지다. 애플 노치 디자인을 시작으로 물방울 노치 등이 나왔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성공했다.

높은 해상도 역시 콘텐츠를 오래 소비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갤럭시 S3는 1280 x 720, 갤럭시 S10은 3040 x 1440 규격으로 2배 이상 세밀해졌다.

TV 시장은 벌써 8K 경쟁이 치열하다. 해상도가 7680x4320인 화면을 뜻한다. 아직 실제 판매량은 미미한 수준, 그러나 가전 업계는 올해부터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제품을 출시하고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업스케일링 기술도 보급 확대에 한몫할 전망이다.

발광 소자를 둔 싸움도 소비자 눈을 더 오래 콘텐츠에 두기 위한 과정이다. 더 밝고 또렷한 화면은 눈 피로를 덜어줄 수 있다. 삼성이 QLED TV와 소형 OLED로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인 가운데, LG를 필두로한 OLED TV 전선이 확대되는 중이다. 삼성은 OLED 번인 문제를 해결한 QD-OLED를 순조롭게 개발 중으로 알려졌다.

눈 피로를 줄이기 위한 과학적인 접근도 계속 진행 중이다. 블루라이트 필터가 대표적이다. 블루라이트는 가시광선에서 파장이 강한 파란 계열로, 눈 피로 뿐 아니라 수면장애를 일으킨다. 그동안 모바일 제품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블루라이트 필터를 제공해왔지만, 삼성전자는 갤럭시S10에 기술적으로 블루라이트를 줄였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

판 커지는 美中 무역분쟁

화웨이, 美 '장비 사용 금지' 소송 준비

화웨이가 여론전에 이어 미국을 상대로한 법적 분쟁까지 벌일 태세다. 미중 무역 분쟁도 한층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5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화웨이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사유는 자유 경쟁 위반이다. 미국 정부가 정부 기관에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은 3일 캐나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 3명과 검찰 총장을 고소한 바 있다. 출입국 사무소가 정식으로 체포하기 전, 멍 부회장을 3시간 동안 불법으로 감금하고 심문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화웨이는 미국과의 분쟁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왔다. 화웨이 제재가 미중 무역전쟁 대리전 양상을 띄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비난 여론에도 광고를 게재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만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유럽을 비롯한 국가들이 화웨이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승산이 높아졌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 대응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재웅 기자 juk@

국제유가 상승세… 정유社 실적 회복될까

정제마진도 손익분기점 근처로 올라

정유업체들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국제유가와 정제마진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에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하며 적자를 피하지 못한 정유사들의 올해 실적 반전이 기대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합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OPEC(석유수출국기구)이 감산도 지속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 마감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79달러(1.4%) 오른 56.5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0.53달러(0.81%) 오른 65.60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정유사들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정제마진도 회복세다. 정제마진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료인 원유 가격과 수송·운영비 등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지난달 마지막 주 정유사들의 정제마진은 배럴당 3.5달러 수준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정유업계에서는 정제마진의 손익분기점을 4~5달러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1월 1달러대까지 추락한 정제마진이 손익분기점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정유사들의 실적 회복도 기대되고 있다.

글로벌 정기보수 시즌에 따른 설비 가동률 하락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한동안 정제마진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국내 기름값 역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3.0원 상승한 1345.9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다섯째 주 이후 주간 기준으로 줄곧 전주 대비 하락세를 보이다가 2월 셋째 주 처음 상승 전환한 뒤 2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지친 딸들을 위해… 민간 노인돌봄서비스 개척

도전! 스타트UP

(주)엄마를 부탁해

복잡한 검진절차 돕는 병원동행부터
24시간 간병 간호 돌봄서비스까지
정부 손길 닿지 못하는 분야 담당해

엄마를부탁해 손근영 대표(왼쪽 세번재)와 직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엄마를 부탁해….'

이름만 봐도 무엇을 하는 일인지 확 와닿는다.

"회사를 다니면서 아프신 엄마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나처럼 다른 딸들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나와 같은 애로를 겪는 분들을 돕기 위해 회사를 만들자고 마음을 먹었다."

'엄마를부탁해'의 손근영 대표의 말이다.

'엄마를부탁해'를 만든 손 대표는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보편적이지 않은 관 주도의 노인요양서비스를 벗어나 민간 노인돌봄서비스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장본인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정부 지원을 받아 돌봄 서비스를 받는 인원은 고작 10명 중 1명 정도다.

부모와 같이 동거를 하지 않는 자식들이 많은 상황에서 부모가 아파 병원을 가야할 때나 일상적으로 식사를 챙겨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 모습이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몸은 함께하지 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인 셈이다.

손 대표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

▲병원·외출 동행 돌봄 ▲간병간호 돌봄 ▲일상가사 돌봄 ▲목욕단정 돌봄 ▲산책말벗 돌봄 ▲24시간 돌봄 등이 엄마를부탁해의 대표적인 서비스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이를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바쁜 자식들이 부모님들을 케어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하던 차에 이같은 사업을 시작하게됐다. 민간서비스를 통해 부모를 부양하는 자식들이 보다 편리할 수 있도록 '엄마를부탁해'를 시작했다." 손 대표의 설명이다.

심지어 엄마를부탁해는 평소 챙기기 쉽지 않은 부모의 생일을 맞아 미역국, 불고기 등을 조리해 생일상을 직접 차려드리고, 케익이나 영상편지를 전달하며 자식들의 영상편지를 통해 감동을 전달하는 이벤트도 펼치고있다.

평소 부모에게 선뜻 하기 쉽지 않았던 일을 엄마를부탁해를 통하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손 대표는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자식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부모가 병원에 가야하는 경우다. 엄마를부탁해의 '효돌보미'들이 하는 병원동행서비스는 절차가 복잡한 검진 절차를 도와드리고, 또 입원한 뒤 퇴원한 부모들의 병간호 등을 돕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면서 "효돌보미는 3시간 서비스를 기본으로 24시간 등 시간 등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관련 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년사관학교에도 입학했다.

그는 "관련 비즈니스에 대한 생각은 많았지만 스킬(기술)을 알기는 쉽지 않았다. 플랫폼 개발이나 홍보 등을 청년창업사관학교 과정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의 꿈은 이제 시작이다.

전국의 요양보호사들을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최적의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노인들을 케어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나 정보들을 모아 '노인돌봄소식' 코너를 만드는 것도 또다른 시도다.

"엄마를부탁해는 어르신들이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꿈이다. 아울러 자식들에게는 제일 큰 고민인 부모 돌봄을 정성을 다해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자 사명이다." 지도에 없는 민간돌봄서비스를 스타트업으로 과감하게 처음 시작한 손 대표의 출사표다. /김승호 기자 bada@